

# “잊지 않을게, 진상규명 할게...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 세월호 6주기...진도 맹골수도 유가족 선상 추모 동행 취재

엄마들은 또 흐느꼈다. 대답 없는 바다를 향한 격한 믿음만 토해냈고 쏟아지는 눈물만 끝없이 뒤얽혔다. 6년이 지났지만 참사로 소중한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애절한 마음은 여전했다.

16일 오전 7시 15분. 목포시 죽교동 목포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한 18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가는 금세 뜨거워졌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밝히지 못한 진실, 달라지지 않은 사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 듯했다.

유가족과 4·16재단 관계자 등 70여명이 오른 3000t 급해경합정 3015호 분위기는 먹먹함으로 가득했다.

3시간 남짓 흘렀을까. 10시 20분께 말 없는 바다, 진도 맹골수도에 도착했다. ‘세월호’라는 노란색 부표가 참사 현장을 알렸다. “아들, 엄마 왔다”, “딸, 아빠 보고 싶어.” 바다 속 자녀들에게 알려려는 듯 함정은 목직한 뱃고동을 울렸다. “호진아, 너무 보고 싶어...”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이호진 군의 엄마 김미옥씨는 오열했다. 한참을 흐느꼈다. 대답 없는 아들, 힘이 빠져버린 엄마는 손에 쥔 국화를 힘없이 바다에 던졌다.

다른 유가족들도 함정 난간을 붙잡고 아들, 딸 이름을 부르며 오는 내내 잠았던 울

해경 함정 타고 3시간 이동

통곡의 바다엔 노란색 부표만

하얀 국화꽃 바다에 뿌리며

“보고 싶다” 그리움 토해 내

남겨진 의혹 하루빨리 밝혀야

음을 터트렸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김빛나라 아버지 병권씨는 “매년 4월 16일이 가까워지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매년 보는 바다는 달라진 게 없는데, 부모 마음은 점점 더 아픈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빛나라에게) 힘이 없는 아빠라, 속시원하게 해결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며 “내년에는 딸에게 진상규명 등 조금 더 말해줄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친구 김빛나라 양과 마지막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던 변영주(당시 단원고 3학년)씨도 괴로움에 찾지 못했던 바다를 보며 친한 동생을 향한 그리움을 토해냈다.

변씨와 김빛나라 양은 단원고 선·후배

로, 교회를 함께 다니며 친자매와 다름 없는 정을 쌓았던 사이다.

변씨는 “너무 힘들어 오지 못했다. 바다 속에서 당시 나라가 얼마나 아팠을까, 무서웠을까”라며 잠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가 문자로 건넨 위로와 용기의 문자가 나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현화와 목념 시간이 끝나고 함정은 사고 해역을 돌며 작별을 알렸다. 유가족들은 멀어지는 바다를 보며 아이들 이름을 불렀다. 2학년 9반 고(故) 정다혜 양의 어머니 김인숙 씨도 가방에 걸린 딸의 증명사진과 이름표를 꾸욱 누르며 복받치는 그리움을 잡아냈다.

목포해경부두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목포 신항만에 세워놓은 세월호를 둘러봤다.

유족 이용기씨는 손을 들어 “저 참문 안쪽이 우리 아이가 발견된 곳”이라며 “하루 빨리 남겨진 의혹을 속 시원히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4·16재단 임병광 간사는 “유족분들이 어제 치러진 총선에 어느때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면서 “총선 이후 정부와 국회가 미흡한 세월호 진상 규명과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도 맹골수도·목포 글·사진=김민석 기자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 해역인 진도군 맹골수도를 찾아 현화하고 있다.



16일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지켜보고 있다.

## 밤에도 과속 단속 왜? ...음주단속 중단에 사고 늘자 ‘고육책’

광주북부경찰 사고 예방 나서

경찰이 밤에도 과속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하면서 음주 사고가 잇따르는가 하면, 과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북부경찰은 심야 시간 교통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이동식 과속 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구간은 서암대로, 필문대로 등 심야시간대 상습 과속구간으로 인명 피해가 빈번한 곳이다.

광주의 경우 울타리 2월부터 3월까지 123건(2월 64건·3월 59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 21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전년도 같은 기간 음주사고(67건)

로 126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에 걸춰 2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지역 2·3월 음주사고는 138건(2017년 사망 2명·부상 264명)→118건(2018년 부상 236명)→67건(2019년 사망 1명·부상 125명)으로 해마다 감소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음주단속을 멈추면서 급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총선 선거사범 광주 45명·전남 84명 단속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광주지역의 선거사범 규모는 20대 총선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선거 관련 범죄는 줄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 총선 선거사범 45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는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43명은 내사 혹은 수사 중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9건, 26명을 단속한 것에 견줘 늘었다.

경찰은 지난 10일 광주 북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들

폭행한 유권자를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19명(42%)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명(22%)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사전 선거운동’ 7명(16%) ▲‘백보·현수막 훼손’ 5명(11%)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 3명(7%)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 선거사범은 감소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4명을 단속,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7명은 현재 수사 중이며 4명은 불기소·내사 종결 처분했다.

단속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22명(29.7%) ▲‘현수막·백보 훼손’ 17명(22.9%)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4명(18.9%)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 9명(12.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8명(10.8%) 등이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10명을 단속한 것에 견줘 23.6%가 줄었지만 현수막·백보 훼손과 사전선거 단속 대상의 경우 지난 선거 때에 비해 각각 13명, 5명이 증가했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소방본부 드론 띄워 산불 감시

다음달까지 봄철 화재 예방

전남소방본부가 드론을 띄워 봄철 산불 화재 감시에 나선다.

전남소방본부는 16일 “봄철 임야화재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드론 공중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이 드론을 띄워 화재 감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론 공중 감시는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임야 화재 및 인명 피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전남지역을 54개 권역으로 나뉘, 54개 팀이 드론 63개를 활용해 감시한다.

1주일에 1~2일, 주말·휴일 등 사람 왕래가 잦은 날 집중 감시한다.

전남소방은 드론 감시 활동에 앞서 최근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드론교육원 등 총 24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드론 공중 감시단’을 구성했다.

전남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봄철(3~5월) 화재 10건 중 4건은 야외 및 임야에서 일어났다. 노인들이 농업용 쓰레기 등을 태우다 불이 번지는 경우가 많았고, 무리하게 불을 끄려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주행 중 트럭 불 ‘한바탕 소동’



○...앞차가 버린 담배꽂이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운전자와 소방당국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한바탕 소동.

○...16일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광주 시 광산구 신창동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A씨 화물차 적재함에 불이나 실려 있던 화물 등 1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차가던 차량에서 버린 담배꽂이 때문에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려다 운전자가 조사를 원치않아 그대로 종결기로 결정.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100% 동결건조 농축분말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 밤에도 과속 단속 왜? ...음주단속 중단에 사고 늘자 ‘고육책’

광주북부경찰 사고 예방 나서

경찰이 밤에도 과속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하면서 음주 사고가 잇따르는가 하면, 과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북부경찰은 심야 시간 교통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이동식 과속 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구간은 서암대로, 필문대로 등 심야시간대 상습 과속구간으로 인명 피해가 빈번한 곳이다.

광주의 경우 울타리 2월부터 3월까지 123건(2월 64건·3월 59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 21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전년도 같은 기간 음주사고(67건)

로 126명이 다치거나 숨진 것에 걸춰 2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지역 2·3월 음주사고는 138건(2017년 사망 2명·부상 264명)→118건(2018년 부상 236명)→67건(2019년 사망 1명·부상 125명)으로 해마다 감소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음주단속을 멈추면서 급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총선 선거사범 광주 45명·전남 84명 단속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광주지역의 선거사범 규모는 20대 총선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선거 관련 범죄는 줄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 총선 선거사범 45명을 단속해 1명을 구속하는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43명은 내사 혹은 수사 중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9건, 26명을 단속한 것에 견줘 늘었다.

경찰은 지난 10일 광주 북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들

폭행한 유권자를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19명(42%)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명(22%)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사전 선거운동’ 7명(16%) ▲‘백보·현수막 훼손’ 5명(11%)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 3명(7%)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 선거사범은 감소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4명을 단속,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7명은 현재 수사 중이며 4명은 불기소·내사 종결 처분했다.

## 전남소방본부 드론 띄워 산불 감시

다음달까지 봄철 화재 예방

전남소방본부가 드론을 띄워 봄철 산불 화재 감시에 나선다.

전남소방본부는 16일 “봄철 임야화재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드론 공중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이 드론을 띄워 화재 감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론 공중 감시는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임야 화재 및 인명 피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전남지역을 54개 권역으로 나뉘, 54개 팀이 드론 63개를 활용해 감시한다.

1주일에 1~2일, 주말·휴일 등 사람 왕래가 잦은 날 집중 감시한다.

전남소방은 드론 감시 활동에 앞서 최근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드론교육원 등 총 24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드론 공중 감시단’을 구성했다.

전남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봄철(3~5월) 화재 10건 중 4건은 야외 및 임야에서 일어났다. 노인들이 농업용 쓰레기 등을 태우다 불이 번지는 경우가 많았고, 무리하게 불을 끄려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주행 중 트럭 불 ‘한바탕 소동’

○...앞차가 버린 담배꽂이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운전자와 소방당국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한바탕 소동.

○...16일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광주 시 광산구 신창동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A씨 화물차 적재함에 불이나 실려 있던 화물 등 1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차가던 차량에서 버린 담배꽂이 때문에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려다 운전자가 조사를 원치않아 그대로 종결기로 결정.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